

베테랑 투타 맹활약...강자 모습 되찾은 KIA



22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 KIA 3회말 1사 2, 3루에서 5번타자 이범호(오른쪽)가 스리런홈런을 날리고 홈인하며 김주찬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범호·김주찬 스리런 평평...KIA, kt 8-5 꺾고 4연승

시즌 2승 한승혁 "나는 하루살이...위기의식 가지고 집중"

KIA 타이거즈가 '전·현직 베테랑'의 한방으로 4연승을 달렸다.

KIA는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8-5 승리를 거뒀다.

'위기의 선발' 한승혁이 6이닝 3피안타(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4실점(3자책점)을 기록하며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직구의 힘을 앞세운 한승혁의 뒤에는 든든한 베테랑들이 있었다.

1회 출발은 좋지 못했다. 한승혁이 볼넷으로 선두타자 강백호를 내보냈고, 로하스의 병살타성 타구 때 2루수 최정민의 실책이 나오면서 무사 1·2루가 됐다. 폭투까지 이어지면서 2·3루. 유격수 직선타로 원아 웃을 잡은 한승혁은 황재균의 땅볼 때 실점을 했지만 박경수를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한승혁이 2·3회를 삼자범퇴로 막자 타선이 힘을 냈다.

'전 주장' 이범호가 다시 한번 주권에게

스리런을 안겨주며 한승혁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주권과의 시즌 첫 대결이었던 지난 3월 25일 1회부터 스리런을 터트리면서 14-1 대승을 이끌었던 이범호가 이번에는 0-1로 뒤진 3회 기회를 맞았다.

선두타자 김선빈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이범호가 우중간 2루타가 나오면서 무사 2·3루. 최정민과 김주찬의 땅볼 때 1루수 오태곤의 야수 선택이 잇달아 나왔다. 1루대신 홈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모두 세이프였다. 처음 아웃 판정을 받았던 김선빈은 비디오 판독 끝에 득점을 인정받았다. 포수 장성우가 홈 베이스를 밟고 있던 상황, 홈 충돌방지규정에 의해 세이프가 선언됐다.

그리고 2-1이 된 1사 2·3루에서 이범호가 타석에 섰다.

조구에 크게 헛스윙을 했던 이범호가 2구째 높게 들어온 144km짜리 직구를 밀어 우중간 담장을 넘기며 한번에 3타점을 올

렸다. 이 홈런으로 이범호는 박경완과 함께 KBO리그 역대 최다 홈런 공동 6위(314개)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5위는 심정수로 328개다.

4회 공격에서는 김주찬이 3점포를 날렸다. 김주찬은 이범호가 최정민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1사 1·3루에서 주권의 127km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시즌 7호 홈런을 장식했다.

깔끔한 피칭을 이어가던 한승혁이 8-1로 앞선 5회 첫타자 오태곤에게 중견수 키 넘기는 3루타를 내주며 두 번째 위기에 몰렸다. 장성우의 우전 안타로 8-2. 심우준을 포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무서운 신인' 강백호와의 승부에서 투란을 허용했다.

홈런은 내줬지만 앞선 등판과 달리 한승혁이 침착하게 선발 역할을 해냈다. 로하스와 이진영을 내야 땅볼로 처리한 한승혁은 6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황재균을 헛

▲광주전적(22일)

kt	100	030	001	5
KIA	005	300	00X	8

△승리투수= 한승혁(2승 2패) △세이브투수= 임창용(3세이브) △패전투수= 주권(1승 3패) △홈런= 강백호 7호(5회2점·kt) 이범호 6호(3회3점) 김주찬 7호(4회3점·이상 KIA)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삼자범퇴로 마지막 이닝을 종료했다.

한승혁은 "앞선 등판에서는 이닝에 신경 쓰느라 직구를 조절하면서 던졌다. 하지만 그렇게 던지다 보니 밸런스가 무너지는 등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다. 오늘은 전력으로 직구를 던지면서 좋은 결과를 냈다. 변화구 제구가 잘 안 됐는데 직구 구위가 좋았다. 상대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모습이었다"고 돌아봤다.

또 "나는 하루살이다. (선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했다. 고독하게 나하고 싸웠던 것 같다. 최근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억원+PGA 출전권 잡아라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내일 개막

'우승 상금 3억원보다 PGA투어 대회 출전권'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인 인천 짝니클 라우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출전선수들에게는 고급 종합 선물 세트나 다름없다.

총상금 15억원의 국내 남녀 대회 통틀어 가장 많다. 우승 상금 3억원은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오픈과 함께 국내 최고액이다.

이 대회 우승이면 상금왕 경쟁에서 절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김승혁이 상금왕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 대회 우승이었다.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G70 한대도 부상으로 따라온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입맛을 돋우는 것은 두 차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출전권이다.

이 대회 우승자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PGA투어 더CJ컵과 내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러지는 제네시스 오픈에 나갈 수 있다. 특히 제네시스 오픈은 타이거 우즈(미국)가 주관하기에 우승과 겨뤄볼 수 있는 다시 없을 경험이다.

코리아투어에서 가장 값진 우승 상품이 내걸린 대회이니만큼 내로라하는 정상급 선수는 다 모인다.

작년에 눈부신 아이언샷을 앞세워 정력도 이 대회 우승이었다.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G70 한대도 부상으로 따라온다.

/연합뉴스

강채영 691점...양궁 월드컵 예선서 세계新

세계 최강인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이 월드컵 예선에서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양궁 국가대표 강채영(경희대)은 21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2018 세계양궁연맹(WA)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리커브 예선에서 720점 만점(70m·72발)에 691점을 쏘았다.

지난해 타이베이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최미진(광주여대)이 세운 세계기록 687점을 1년도 안 돼 4점 경신했다.

강채영은 경기 후 WA와의 인터뷰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쏠라곤 예상 못 했다. 세계신기록을 세워 정말 기쁘다"며 "더 노력해서 다시 한



번 기록을 깰 것이다. 다른 선수가 기록을 경신했다면 좋은 일이지만 당분간은 기록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연합뉴스

강정호 연습경기서 홈런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가 3번째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 의지를 다졌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에게 3루수와 유격수 훈련을 시키며 활용 폭을 넓히려 한다. MLB닷컴은 22일 독자 질문에 답하는 코너에서 강정호에 대해 다루며 "아직 피츠버그는 강정호 복귀 일정을 확정

하지 않았다. 꽤 오래 선 타에 타석에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츠버그가 강정호 복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강조했다.

MLB닷컴은 "강정호는 연습경기에서 3루수와 유격수를 번갈아 본다. 유격수 자리에도 익숙해지면 2루수 훈련에도 도입할 수 있다"며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 복귀하면 내야 유틸리티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역대 최다 홈런 공동 6위 이범호 "2위 되면 소감 얘기" 최고참 임창용 "평균자책점 낮춘다는 생각으로 던져"

덕아웃 T 특특

▲2위 되면 이야기할게요 = 이범호는 22일 영양가 만점의 스리런으로 박경완과 함께 KBO리그 역대 최다 홈런 공동 6위(314개)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5위는 328홈런의 심정수. 3회 1사 1·2루에서 주권을 상대로 했던 홈런. 조구에 헛스윙을 했던 이범호는 "노리고 들어갔다. 조구에 헛스윙을 했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공에서 홈런을 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역대 최다 홈런 공동 6위 소감을 묻는 말에는 "아직 해줘야 할 게 많다. 2위 정도는 하고 나서 소감을 말하겠다"며 웃었다. 역대 최다 홈런 2위는 양준혁으로 351개의 홈런을 남기고 은퇴했다.

▲평균자책점 낮춘다는 생각으로 = 어

는 상황에서는 묵묵하게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는 KIA의 '최고참'. 임창용은 지난 18일과 20일 9회를 책임지면서 스윙승에 역할을 했다.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창용이지만 두 경기 모두 세이브와는 상관없는 4점 차, 5점 차의 상황에서 등판했다. 임창용은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나기 편하다. 점수 차가 있는 상황이 나가도 맞으면 화가 나고 그런다. 평균자책점을 낮추자는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김기태 감독은 세이브 상황이 아닌 기용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 팀 상황이 그런 만큼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평균자책점'에 신경 쓰면서 던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베테랑 선수도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욕심을 낸다. 어린 선수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22일에는 8-4로 앞선 8회 2사 1·2루에 등판해 9회까지

1피안타 1볼넷 1실점을 하면서 세이브를 챙겼다.

▲홀드 안 해도 좋으니까 = 기대했던 첫 홀드였지만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던 유승철이다. 고졸 2년 차 유승철은 올 시즌 처음 1군 무대를 밟은 '중고 신인'이다. 힘 있는 직구와 배짱 있는 피칭으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던 그는 볼펜의 새 전력이었다. 지난 18일 SK와의 경기에서는 4-1로 앞서 6회 2사 1·3루에서 임기영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1루수 땅볼로 이닝을 종료시키는 등 0.2이닝을 소화하면서 데뷔 후 첫 홀드를 기록했다. 기대했던 홀드였지만 유승철은 "욕심이 생기기까지 했다"며 아쉬웠다. 7회에도 등판한 유승철은 1사에서 2루타와 볼넷을 허용하고 내려왔다. 이후 심동섭과 김윤동이 2루 땅볼과 삼진으로 남은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유승철의 실점은

남지 않았다. 유승철은 "다음 이닝에 욕심을 내서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다. 홀드를 안 하더라도 많은 이닝을 잘 던지고 싶다"고 언급했다. 유승철은 22일에는 7회 두 번째 투수로 나와 탈삼진 두 개 포함 1.1이닝 1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나가면 떨릴 것 같아요 = '예비역' 박준태가 22일 kt와의 홈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2015시즌이 끝난 뒤 경찰청에 입대했던 외야수 박준태는 지난 가을 제대했다. 그리고 육성선수 신분으로 올 시즌을 시작했던 박준태는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정식 선수로 등록됐고, 22일 1군에 콜업됐다. 경기 전 "조금 어색하지만 군대 가기 전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경기가 나가면 떨릴 것은 같다"고 밝혔다. 공을 잡으면서 똑같이 야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관중석에서 삼진송이 나오는데 즐거웠다"고 복귀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